

# 佛현대철학의 두 거장 대표 논문선

보드리야르「섹스의 황도」, 들뢰즈「대담」



솔 출판사의 입장총서 제10권과 제15권인 장 보드리야르의 「섹스의 황도」와 질 들뢰즈의 「대담」이 출간됐다.

「섹스의 황도」에서는 보드리야르의 저술 활동 중 초기에서 중기에 걸쳐 있으면서,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생산의 거울」 「상징적 교환과 죽음」 「유혹에 대하여」의 중요한 부분들이 소개된다.

특히 「상징적 교환과 죽음」은 이왕에 번역출간된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과 「시물라시옹」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핵심저작으로서, 역자 정연복씨는 “포스트모더니즘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피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성적 독자들의 생각을 뾰족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적고 있는 글. 자본주의 안의 교환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환의 양식에 대해 반대

하는 한편, 기본적으로는 원시사회에서 발견되지만 지금의 사회에서도 언뜻언뜻 나타나는 다른 교환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표제가 된 논문 「섹스의 황도」는 「유혹에 대하여」의 제1장으로서, ‘성’ 또는 ‘섹스’에 대한 전복적 태도로서 ‘유혹’이 제시된다. 페미니즘 역시 남근 중심주의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

反해겔주의 철학의 필요성을 느낀 첫번째 철학자이며 푸코와 함께 그 새로움의 운과를 잡아놓은 들뢰즈의 「대담」은 그의 철학이 거의 소개돼 있지 않은 우리에게 「입문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책이다.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그의 삶과 작품세계가 대담형식의 글들로 묶였다. 숭실대 불문과 교수인 역자 김중호씨는 「역자서문」에서 원본인 「Pourparlers(1972~1990)」을 「답판」 「협상」이라는 일차적 역어 대신, 「대담」을 택한 이유에 대해 “원어의 적극적인 의미가 다소 감소되는 느낌이 없지 않지만, 어원 속에 담긴 대담개념인 對와 언어개념인 談을 나름대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 밝힌다.

철학적 담론의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유의 제반 양상, 사회의 제반 현상, 예술의 제반 형상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사유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反외디푸스」 「천 개의 세트」 「영화」 「미셸 푸코」 「철학」 「정치」 등에 대한 대담이 수록돼 있다.

솔/A5신/각 300, 214면/각 7000, 6500원

# 진나라 통치이념 수립한 經學의 원조

김근 역주 「呂氏春秋」



중국 최초의 천하통일과 더불어 중앙집권제를 실시한 진나라의 통치이념을 수립한 「呂氏春秋」가 국내 初譯되었다.

중국의 문화와 학술을 漢學이라 할 만큼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 및 학술 사상은 漢代에 형성되었는데, 「여씨춘추」는 바로 한대 학술의 골간이자 한대 정치를 떠받쳐 준 정신적 역량인 「經學」의 원조라는 점에서 한대 학술의 경향과 본질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평가되는 책이다.

특히 역자인 김근(계명대 중문과)교수는 「해제」를 통해 편찬자인 呂不韋(?~B.C. 235)의 사상이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끈다. 그에 의하면 「반고가 「여씨춘추」를 雜家류의 작품으로 분류한 이래 「잡탕」의 사상가로 평가돼 온 것은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 「여

씨춘추」가 先秦 경전 및 제자백가의 「짜집기」가 아니라 “초기도가의 사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각 사상의 장점을 널리 흡수하여 새로운 학설을 형성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리하여 “「黃帝四經」 및 후대의 「회남자」 등과 더불어 新道家라고도 불리는 黃老학파로 분류해야 한다”고 저자는 정리한다. 예를 들면, 「여씨춘추」의 법가는 儒家化한 법가이고 묵가는 兵家化한 묵가라는 것이다.

이같은 뿌리깊은 오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역시 「해제」에 의하면, 「여씨춘추」의 편찬 동기와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편찬동기가 진나라의 천하통일 직전의 격렬한 권력투쟁의 일환인 「불순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가의 군주전제론을 견지한 진시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권력을 나누어 누리자는 新道家의 입장을 내세운 것. 편찬과정 또한 여불위가 자신의 문하에 수많은 식객을 불러 모아 저술케 했기 때문에 「여씨춘추」의 새롭고 독창적인 측면들이 무시됐다는 것이다.

「여씨춘추」는 전체적으로 紀·覽·論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특히 「기」를 골간으로 한다고 알려진다. 총3권으로 완역될 「여씨춘추」 중 제1권에 해당하는 이 책은 「12기」를 번역한 것으로, 음양가의 월령을 차용한 편찬체제로 돼 있다. 즉 각편의 논문을 춘·하·추·동 사계절 아래에 분배한 형태이다. 그 형태는 또한 「시경」, 「춘추」로 대표되던 시대의 음양적 세계관을 사시의 변화와 융합시켜 새로운 형이상학적 관념체계를 완성시킨 「주연」의 학설을 차용한 것이라고 한다.

민음사/A5신/540면/15000원

## “책에 관한 700-8204로 전화하십시오”

'93년 책의 해를 맞아 책의해 조직위원회와 텔레콤 700에서 책에 관한 각종 정보를 도서음성서비스전화를 통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독자가 알고자하는 분야를 알기쉽게 제공합니다.



### 이용 방법

도서음성정보 서비스전화(700-8204/MFC전화)를 이용하여 독자가 알고자 하는 분야의 도서서비스 코드를 누르면 책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도서음성정보구성도  
책의해 도서정보 700-8204

| 책 | 을 | 떠 | 작 | 미 | 래 | 를 | 열 | 기 |

'93 책의 해

- 새로 나온 책 : 1. 문학 2. 아동 3. 예술 4. 역사 5. 사회과학 6. 기술과학 7. 순수과학 8. 철학 9. 종교
- 우수추천도서 : 1. 문학 2. 청소년도서 3. 종교·철학 4. 역사 5. 사회과학 6. 예술 7. 과학기술 8. 아동
- 요즘 많이 읽는 책 : 1. 소설 2. 비소설 3. 시집 4. 인문과학 5. 사회과학 6. 자연과학 7. 컴퓨터 8. 어린이

# 교양을 위한 필독법학서 목록해제

교육과학사 펴냄 「읽어야 할 법학교양서」



최근 각 법과대학에서는 '고시 패스'라는 절대명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폐단을 반성하고 법학교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시험제도와 비정상적인 법학교육에 매달려 교양과 양심에 밑바닥을 드러내는 법학도를 위하여 '법학교양강독' '법과 문학' '법과 현대사회' '여성법률' 등의 교과목을 개발하고 있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학 교양서적을 전문적으로 펴내는 출판사도 생겼다. '법학교양총서'를 꾸준히 발간하는 '교육과학사'가 바로 그것이다.

총서 제37권인 「읽어야 할 법학교양서」(한국법연구회 엮음)는 '법학 교양도서 해제집'이라 할 만한 책으로, 동서고금의 총 240종의 법학서에 대해 각각 원고지 4, 5매 분량으로 간략한 내용을 정리·소개한다.

사법시험용 교재나 교과서를 배제하고, 법학 자체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는 '명저'들이 법과 법학, 법과 철학, 법과 종교, 법과 사회, 법과 정치, 법과 사상(이데올로기), 법과 司法, 법과 문학, 법률가의 전기 등 10분야로 구분돼 있다. 그리고 소개된 책들은, 머리말에 의하면, "한국의 법대생과 타과 대학생들이 우선 국내서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법학 교양도서들"로서 "법과 법학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 안내서를 길잡이로 삼아 조금씩 법학교양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법학교양서」는 법학서의 안내서이지만 그 자체로 읽는 재미를 주는 부분도 많다. 문학작품을 '법의 관점'에서 소개하는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계약법의 이론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한다"고 서술된다. 카프카의 「訴訟」은 "인간이 실정법을 넘어선 자연법을 지향하면서 그것을 끝내 인식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는 흥미있는 작품"이다. 빅토르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은 법학자들에게 "특정 피고인의 항상 용이하고 일시적인 특별한 옹호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피고인에게 대한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변론"으로 읽힌다.

이같은 관점은 법학도에게는 물론이거니와, 張三李四들에게도 法이란 '금지조항'의 집대성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명징하게 요약한 도면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교육과학사/B5/268면/3000원

# 등급 명시한 비디오정보 가이드북

차림 펴냄 「열려라 비디오 93」



우리나라 가구당 비디오 보급율은 두 집에 한 대가 조금 넘는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 달에 10편 이상씩 비디오를 대여해 보는 '비디오狂'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디오문화의 전성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를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은 심각할 정도로 드문 게 사실이다.

한 편의 비디오를 빌리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고심 끝에 고른 비디오가 첫 장면부터 고르는 순간의 몽상을 배반한다든가 하는 '정신적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저간의 사정은 비디오에 대한 올바른 정보원의 부재에서 찾아진다.

그런 점에서 지난 11년간 국내에서 출시된 모든 비디오를 검토하여 그중 5천여편을 선정, 재미있고 정확한 평을 담은 「열려라 비디오 93」은 '화제의 책'이기에 앞서 '양

서'에 가깝다.

그리고 최대의 정보량을 담았다는 점, 국내 최초의 비디오정보 가이드誌라는 점 이외에 각 작품마다 신뢰도 높은 등급표시를 해놓아 특히 주목된다.

김인선씨 등 20여명의 필진이 참여해, 명예를 걸고, 연출·연기·촬영 등 작품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별표로써 등급을 표기한 것. 별표 하나는 "졸작,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영화"이고, 두 개는 "법작, 부분적으로 괜찮은 데가 있지만 안 봐도 아까울 것 없는 작품"이며, 셋은 "가작"이다. "영화의 스타일이나 출연배우 등 취향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이며, 별 넷은 "수작"으로서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남에게 흔쾌히 권할 수 있는 영화"이고 별 다섯은 "결작, 놓치지 말고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설명이다.

"별볼일 없는" 혹은 "형편없는" 영화까지 굳이 수록한 이유는 "행여 그런 비디오를 빌려 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절대로 없길 바라서"라고 한다. "이 책을 쥐는 순간부터 당신은 비디오대여점에서 무슨 비디오를 골라야 될지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 머리말의 요지인 셈이다.

또한 책의 맨뒤에는 여러가지 '찾아보기'가 있어 '비디오정보사전'으로서의 가치도 더한다. 제품별, 감독별, 배우별 찾아보기 및 상위등급 목록과 주요영화제수상작 목록, 회귀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는 각 지역의 우량 비디오 대여점 명단까지 수록됐다.

(주)차림/A5변형/690면/5000원

## 출판사 경영관리업무를 전산화해 드립니다.

"나라정보시스템"에서는 차세대 출판서적유통 정보화시대를 대비하여 출판산업계의 전산화 확대보급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사의 판매, 재고, 영업 및 경영관리업무 전산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기회를 드립니다.

### 1. 기본정보관리

- 거래처 정보관리
- 도서 정보관리
- 시리즈 정보관리
- DM 발송관리
- 코드 설정관리
- 자료보관/복구

### 2. 전표관리

- 입/출고전표처리
- 반품전표처리
- 조정전표처리
- 입금전표처리
- 거래명세서 발행
- 전표내역조회

### 3. 일보작성

- 판매일보 작성
- 수금일보 작성
- 영업수지일보
- 입/출고 내역서
- 반품 내역서
- 입금 내역서

### 4. 도서재고관리

- 도서/반품재고조회
- 도서/반품수불현황
- 도서/반품재고현황
- 도서/반품재고조사

### 5. 원장관리

- 거래원장 조회
- 거래원장 작성
- 계산서 발행

### 6. 경영정보관리

- 베스트셀러순위
- 서점별 판매순위
- 서점별 수금순위
- 서점별 미수금순위
- 서점별 영업총괄
- 기간별 영업수지

### 7. 정보통신기능

- 송신자료 작성
- 자료 송/수신
- 수신자료 인쇄

■ 최소한의 경비로 10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 수작업업무 대폭 간소화에 따른 인력, 시간 절감
- 신속정확한 장부관리 및 각종 보고서 작성 기능
- 상품수불부, 거래원장, 재고현황 등을 자동처리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고객정보, 판매정보 등)

**NAL A** 나·라·정·보·시·스·템  
☎ 566-1933 FAX 557-9225